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개의 피부 감염창 치유에 대한
녹차 추출물의 국소도포 효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김보람

2006년 12월

Effect of Green Tea Extract on Healing of Contaminated Wound in Dogs

Boram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oo-Myoung Lee)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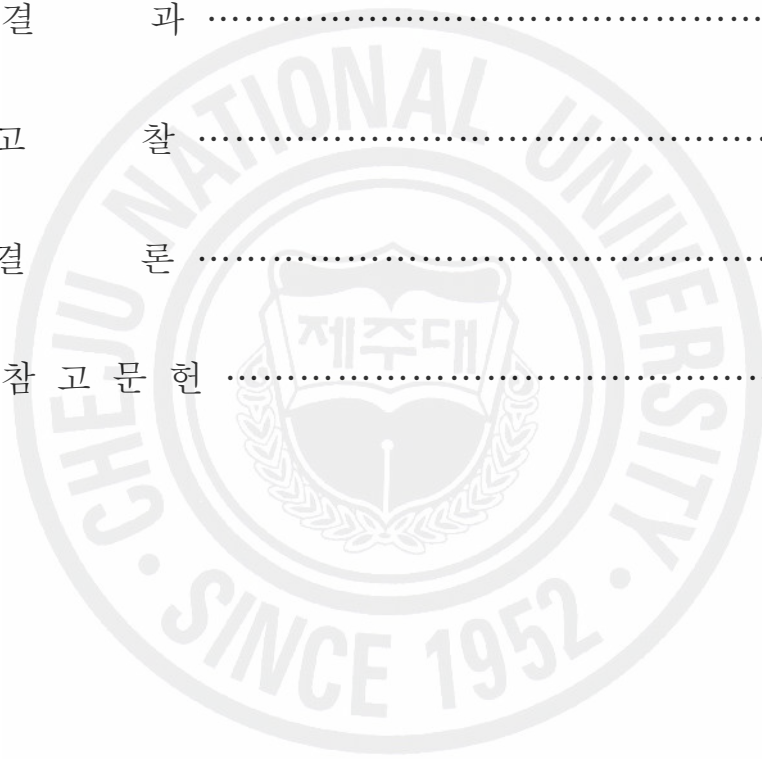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healing effect of the green tea on *Staphylococcus* contaminated wound. On the back of 7 dogs, 6 full-thickness skin wounds (2 cm × 2 cm) were made and *Staphylococcus intermedius* was inoculated. Each wound was applied with the 2% (experimental group I), 1% (experimental group II) extract of green tea and normal saline (control group) after inoculation. The wound contraction rate of the experimental group I and II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in entire period. And from the 6th to 22nd day, the wound contraction rate of the experimental group I and II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p < 0.05$). The occupation rate of wound healing in the experimental group I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from 0 to 9th day except from 1st to 2nd day and also higher than that of the experimental group II

from 0 to 3rd day except from 1st to 2nd day. And the occupation rate of wound healing in the experimental group II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from 1st to 8th day except from 2nd to 3rd day.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green tea extract increased, the wound contracted more vigorously in earlier period. The tensile strength of the experimental group I and II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p < 0.05$). And that of the experimental group I was also higher than in the experimental group II ($p < 0.05$). The number of *S. intermedius* in the experimental group I and II was decreased more rapidly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From the 4th to the 11th day, the number of *S. intermedius* in the experimental group I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experimental group II and the control group. And from the 4th to the 7th day, the number of *S. intermedius* in the experimental group II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 histopathological findings of the experimental group I and II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control group on the 1st and 4th day. On 14th day, reepithelialization was comple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I and II except the control group. Higher wound contraction rate, better bacteriocidal action, higher tensile strength and better histopathological findings were obser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I and II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opical application of green tea extract can promote contaminated wound healing in dogs.

Key word : green tea, *Staphylococcus intermedius*, wound contraction, tensile strength, dog

목 차

I. 서	론	1
II. 재료 및 방법	3	
III. 결	과	7
IV. 고	찰	14
V. 결	론	17
VI. 참	고 문 헌	18



I. 서론

피부 창상은 일반적으로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외피층 및 진피층이 손상 받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런 불연속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창상치유라 한다(16,29). 창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치유되어 일부 반흔 조직만 남기고 정상 상태로 회복되지만, 창상 이후 2차 감염에 의해 화농 형성과 주변 조직 괴사가 일어나게 되면 치유 기간이 지연되며 반흔 조직 역시 광범위하게 형성된다(6,8). 창상 감염의 원인균으로서는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pyogenes* 및 *Pseudomonas aeruginosa*가 문제되는데, 개에서는 *Staphylococcus intermedius*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6,11,23). *Staphylococcus intermedius*는 건강한 상태의 개와 질병 상태의 개 모두에서 가장 흔하게 분리되는 coagulase 양성 *Staphylococci*이며, 개의 피부 감염에 가장 주요한 병원체이고 개의 안구 질병, 외이염, 방광염, 호흡기 그리고 창상 감염의 요인이다(2,22).

창상치유는 전신상태, vitamin 과부족, 저단백혈증, 빈혈, 요독증 등에 영향을 받는데, cortisone과 vitamin E의 동시처치 시에는 창상치유가 지연되며 vitamin A를 투여하면 창상치유를 촉진시킨다(16).

우리 조상들이 즐겨 음용한 차는 그 독특한 약리작용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각종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이용되어 왔다. 이들 차 중에서 녹차는 차엽을 더운 물에 우려내어 마시는 기호음료로서 polyphenol, caffeine, tannin, 단백질, vitamin, 무기질 등 여러 가지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각성작용, 강심작용, 해독작용, 소염작용, 수렴작용 등의 일련의 생리활성 효능을 가지고 있다(38,39,40,41). 이 중 녹차 polyphenol류의 하나인 catechin은 혈중 cholesterol 억제(28), 항균작용(3,5,18,26,27), 항염증작용(36,37), 혈압상승 억제(17), 혈당 억제(13) 등의 약리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외에 항산화 작용(21), 혈소판 응집 억제(33), 항암 작용(9,31) 등이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작용의 대부분은 녹차의 polyphenol 성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녹차의 항균작용 대한 연구는 *in vitro*에서 균주를 배지에 배양하여 녹차 추출물을 직접 적용하는 연구가 있었으나(34,35), 동물의 피부 감염창에 직접 적용한 예는 없다.

본 실험은 창상에 감염을 유발한 후, 녹차를 투여하여 창상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성숙한 5~10 kg의 건강한 잡종견 7두를 암·수 구별 없이 선발하여 실험동물로 사용하였다. 실험 기간 중 사료와 물을 자유 급여하였다. 실험 전 기간에 걸쳐 녹차 추출물과 생리식염수 이외의 약물은 사용하지 않았다.

2. 사용 균주

호흡기 질환이 있는 개의 비루에서 *Staphylococcus intermedius*를 분리하여 coagulase test와 lecithinase test를 실행하고, API kit로 검정한 후 개의 피부창상에서 활성화하여 사용하였다. 확인된 균주를 탁도계로 McFarland standard 0.5에 맞추어 mannitol salt agar에 접종 후 37 °C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2.80×10^8 cfu/ml의 농도로 조절하여 창상 유발 직후 창상부에 100 μ l씩 도포하였다(2,14).

3. 녹차 추출물의 준비

녹차가루를 2 g/100 ml(2 w/v%)가 되도록 하여 80 °C의 물에 30분 동안 추출하고, 4 °C, 1,500 rpm(환산값 5,230 × g)에서 5분 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0.45 μ 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24).

4. 피부 창상 유발 및 군 분류

창상 유발 12시간 전부터 절식하였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마취하였다. 창상 수축에 영향을 주는 피부의 장력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개의 등쪽 제 3 흉추에서 제 4 요추 사이에 정중선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으로 각각 3 cm 지점에 창상의 변연이 위치하도록 2 cm × 2 cm의 피부를 절제하여, 개체마다 총 6개의 결손창을 만들었다. 결손창에는 준비된 *Staphylococcus intermedius*를 접종하였다. 6개의 창상 중 왼쪽 창상은 수축율, 창상부위 세균수, 창상의 인장강도 측정에 이용하였고, 오른쪽 창상은 조직 생검에 이용하였다. 창상 유발 후 1일 째부터 22일 째까지 실험군 I의 창상부에는 2% 녹차 추출물을, 실험군 II의 창상부에는 1% 녹차 추출물을 1일 1회 창상부위에 2 ml씩 도포하고, 대조군에는 생리식염수를 2 ml 도포한 후 포대를 실시하였다.

5. 창상 크기의 변화

창상 면적 측정용으로 배정된 창상을 창상 유발 직후에 창상의 크기를 측정하고, 매일 1회씩 22일째 되는 날까지 시료 처치 전에 측정하였다. 창상부의 측정은 창상부의 면적을 GS-700 Imaging Densitometer(Bio-Rad, UK)로 측정하여 창상 유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창상의 수축 정도를 조사하였다. 창상의 수축율과 기간별 치료 점유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창상부의 면적 변화를 계산하였다 (42).

$$\text{창상의 수축율(\%)} = 100 \times (W_o - U_i) / W_o$$

$$\text{기간별 치료 점유율(\%)} = 100 \times (U_b - U_i) / W_o$$

W_o : 창상 유발 직후 창상부 면적

U_i : 측정일 창상부 면적

Ub : 이전 측정일 창상부 면적

6. 창상부위 세균수

창상 유발 후 1, 4, 7, 11, 21일 째 병리조직 채취 시에 창상부를 멸균 거즈로 문지르고 이 거즈를 10 ml 생리식염수에 넣고 교반한 후, 이 중 1 ml를 mannitol salt agar에 고르게 도포하고 37 °C에서 24 시간 배양하여 확인된 colony 수를 측정하였다(14).

7. 인장강도

창상 유발 후 22일 째에 창상부를 중심으로 하여 2 cm × 6 cm의 크기로 주위 정상 피부와 함께 피부 전층을 완전히 적출하고, TA-XT2 texture analyser(Stable Micro System, USA)를 이용하여 치유된 피부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적출한 피부편을 probe에 고정시키고 probe 사이 간격을 1 cm로 하여 10 mm/sec의 속도로 probe를 견인하였다. 이 때 피부편이 절단되는 순간의 견인력을 측정하였다.

8. 병리조직학적 검사

조직 생검용 키트(5 mm, Biopsy Punch, Kai Medical, Japan)를 이용하여 창상 유발 후 1, 4, 7, 11, 14, 21일에 창상 중심에서 5 mm 떨어진 곳을 생검하였다. 생검조직을 일반적인 조직처리 과정에 따라 처리한 후, Hematoxylin-Eosin 염색을

하고, 염색된 조직 표본을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변화상을 관찰하였다.

9. 통계분석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수축율, 인장강도 및 세균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처리군의 창상 수축율, 인장강도 및 세균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이에 대한 유의성을 분산분석(ANOVA)으로 검정하였다.



Ⅲ. 결 과

1. 창상 수축율

창상 유발 후 1일 째부터 실험 종료까지 실험군 I 과 실험군 II가 대조군에 비해 더 높은 창상의 수축율을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 6일 째부터 15일 째 및 19일 째부터 22일 째 실험 종료일까지는 실험군 I, 실험군 II와 대조군 간의 유의성이 관찰되었다($p < 0.05$). 실험군 I 과 실험군 II의 비교에서, 실험군 I 의 창상 수축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실험 전 기간에 걸쳐 유의성이 관찰되지는 않았다(Fig 1).

창상면이 99.9%이상 폐쇄된 개체수는 실험군 I 에서 17일 째에 1마리, 21일 째에 3마리, 22일 째에 7마리였으며, 실험군 II에서 21일 째에 1마리, 22일 째에 4마리였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창상 유발 후 22일 째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창상면이 98.0%이상 폐쇄된 개체수는 실험군 I 에서 15일 째에 1마리, 19일 째에 3마리, 21일 째에 7마리였으며, 실험군 II에서 18일 째에 1마리, 21일 째에 6마리, 22일 째에 7마리였다. 대조군에서는 21일 째에 3마리, 22일 째에 4마리였다.

창상 수축의 완료 단계에서는 실험군 I 이 대조군보다 약 2~4일 정도 빠른 경과를 보였으며, 실험군 II는 대조군보다 약 1~2일 정도 빠른 경과를 보였다. 또한 실험군 I 이 실험군 II보다 약 1~2일 정도 빠른 경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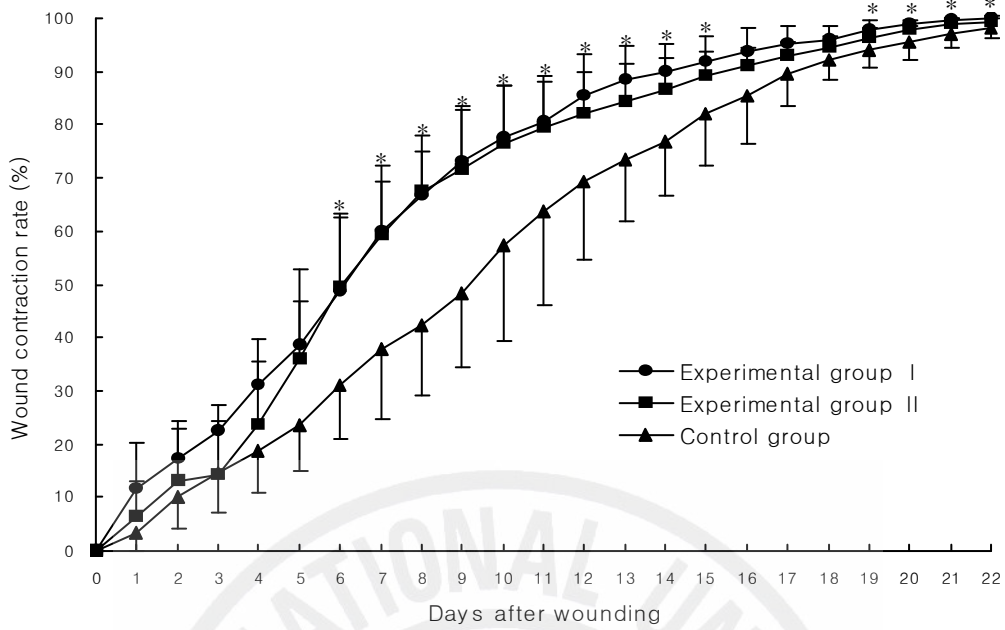


Fig 1. Wound contraction rate (decreased wound size) in the experimental group I, II and the control group. Wound contraction rate was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I and II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roughout whole experimental period. * $p < 0.05$ experimental group I, II versus control group.

2. 기간별 치료 점유율

실험군 I 은 대조군에 비해 1~2일 째를 제외한 0~9일 째 높은 치료 점유율을 보였으며, 실험군 II에 비해서도 1~2일 째를 제외한 0~3일 째 높은 치료 점유율을 보였다. 실험군 II는 대조군에 비해 2~3일 째를 제외한 1~8일 째 높은 치료 점유율을 보였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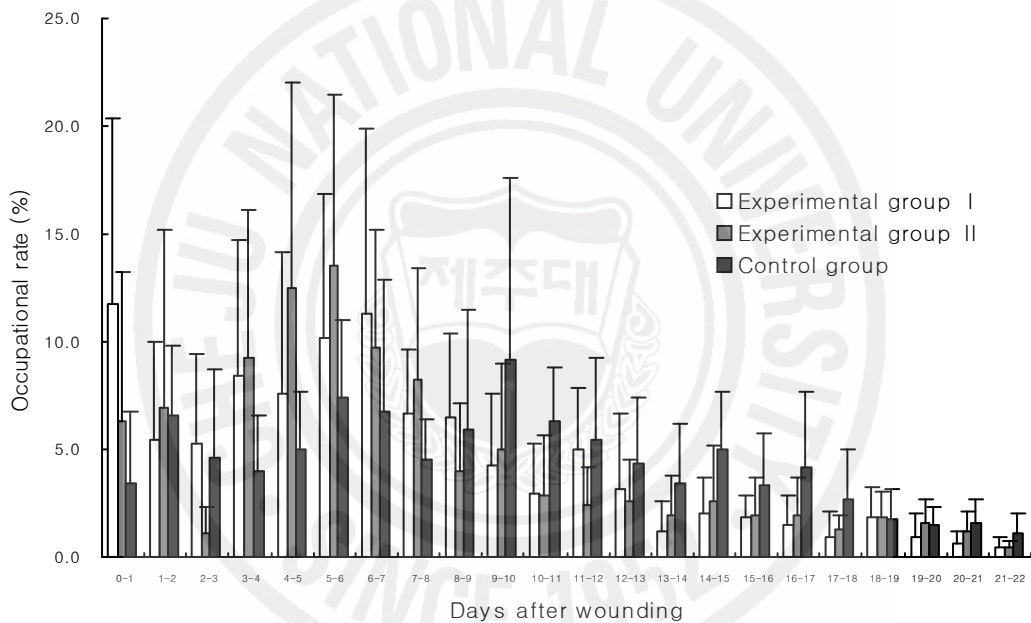


Fig 2. Occupational rate of wound healing in the experimental group I, II and the control group.

3. 인장강도

실험군 I의 피부 인장강도는 $5,125 \pm 668.6 \text{ g/cm}^2$, 실험군 II의 인장강도는 $4,338 \pm 796.8 \text{ g/cm}^2$ 으로 대조군의 인장강도 $2,400 \pm 396.5 \text{ g/cm}^2$ 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다($p < 0.05$). 그리고 실험군 I의 인장강도가 실험군 II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았다($p < 0.05$)(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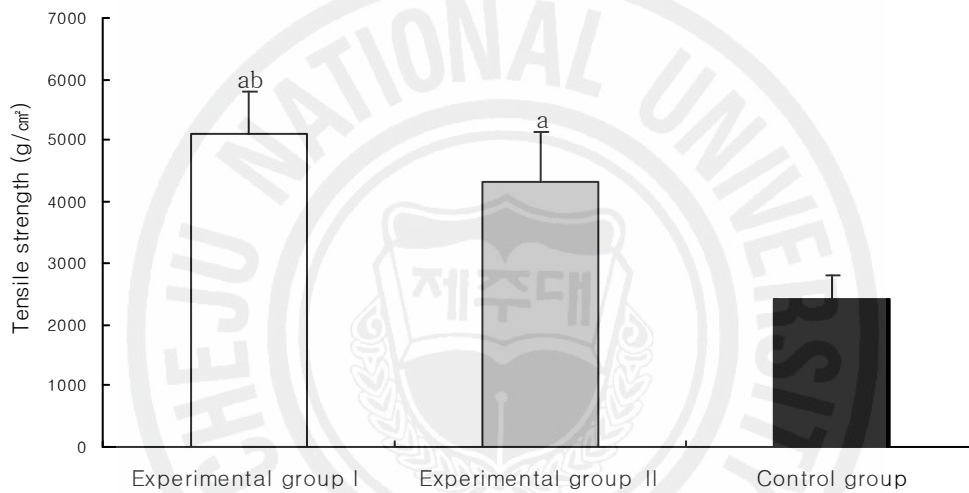


Fig 3. The tensile strength of the experimental group I, II and the control group on the 22nd day. a : $p < 0.05$ experimental group I, II versus control group, b : $p < 0.05$ experimental group I versus experimental group II.

4. 창상부위 세균수

창상 유발 직후 2.80×10^8 cfu/ml의 세균을 도포하여, 창상 유발 후 1일 째에는 세균수가 실험군 I, 실험군 II, 대조군이 모두 유사하게 측정되었으나, 창상 유발 후 1일 째부터 11일 째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다. 11일 째부터 21일 째까지는 세균수 감소가 완만하였다. 창상 유발 4일 째부터 11일 째까지 실험군 I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세균수가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실험군 II에 비해 유의성 있게 세균수가 감소하였다($p < 0.05$). 실험군 II는 4일 째부터 7일 째까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세균수가 감소하였다($p < 0.05$)(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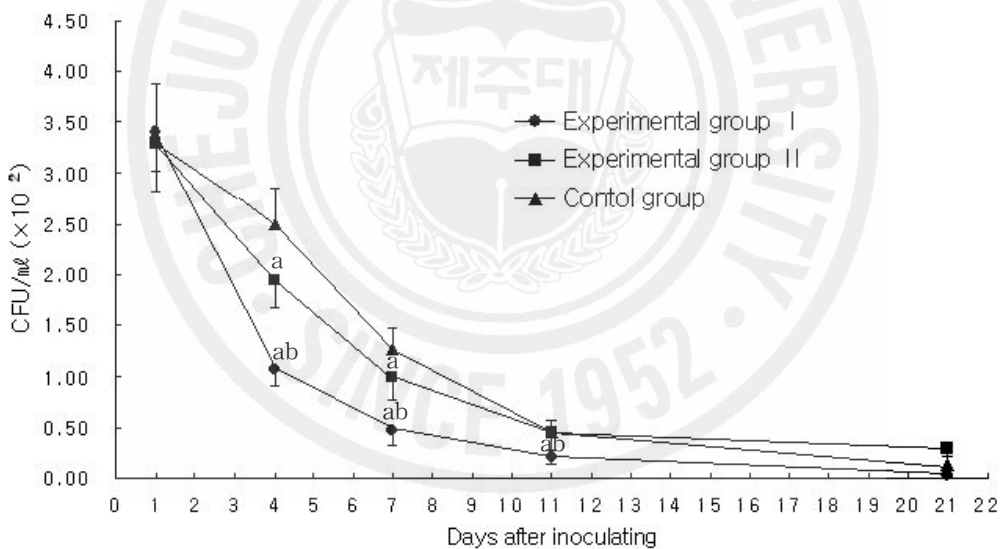


Fig 4. Antibacterial effect (decreased number of CFU) in the experimental group I, II and the control group. a : $p < 0.05$ experimental group I, II versus control group, b : $p < 0.05$ experimental group I versus experimental group II.

5. 병리 조직 소견

창상 유발 후 1일 째에 실험군 I, 실험군 II 및 대조군에서 모두 창상면과 진피층의 염증 및 가피 형성이 관찰되었다. 염증 반응은 실험군들과 대조군에서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창상 유발 후 4일 째에 실험군 I, 실험군 II 및 대조군의 경우 1일 째와 비교하여 염증세포가 약간 줄어든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전반적으로 1일 째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창상 유발 후 7일 째에 모든 군에서 진피하층 및 진피상층부의 결합조직 증생이 나타났다. 실험군 I의 경우 일부 상피층의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실험군 II와 대조군의 경우 상피층의 재생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창상면의 염증과 출혈이 산재하였고 섬유소가 관찰되었다. 대조군에서는 실험군 I, 실험군 II에 비하여 심한 염증소견을 나타내었다.

창상 유발 후 11일 째에 실험군 I에서는 완벽한 상피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염증반응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Fig 5-A), 실험군 II의 경우에는 상피의 재생이 관찰되었지만 일부에서 염증반응도 관찰되었다(Fig 5-B). 대조군에서는 염증반응이 약간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실험군 I, 실험군 II에 비하여 염증반응이 계속 유지되는 양상이었으며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상피의 재생이 관찰되었다(Fig 5-C).

창상 유발 후 14일 째에 실험군 I에서는 상피가 거의 완전하게 재생되는 양상이었고 큰포식세포 반응이 나타났다. 진피상층부의 결합조직이 관찰되었는데, 결합조직은 대부분 fibrocyte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험군 II의 경우 상피 재생의 양상은 실험군 I 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혈관반응과 소수의 염증반응이 남아 있었고 진피층의 결합조직은 대부분 미분화된 섬유모세포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조군에서는 부분적인 상피의 재생만이 관찰되었다.

창상 유발 후 21일 째에 실험군 I에서는 거의 완벽한 피부의 재생이 나타났다. 또한, 상피의 성숙과 피부부속기의 재생이 관찰되었으며 결합조직의 증생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실험군 II의 경우 실험군 I 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진피 상층부의 결합조직 증생이 남아있었으며 실험군Ⅱ에 비하여 완전한 피부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음이 관찰되었다. 대조군의 경우 상피의 재생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진피층은 아직도 결합조직의 증생이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상피층의 성숙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부 부속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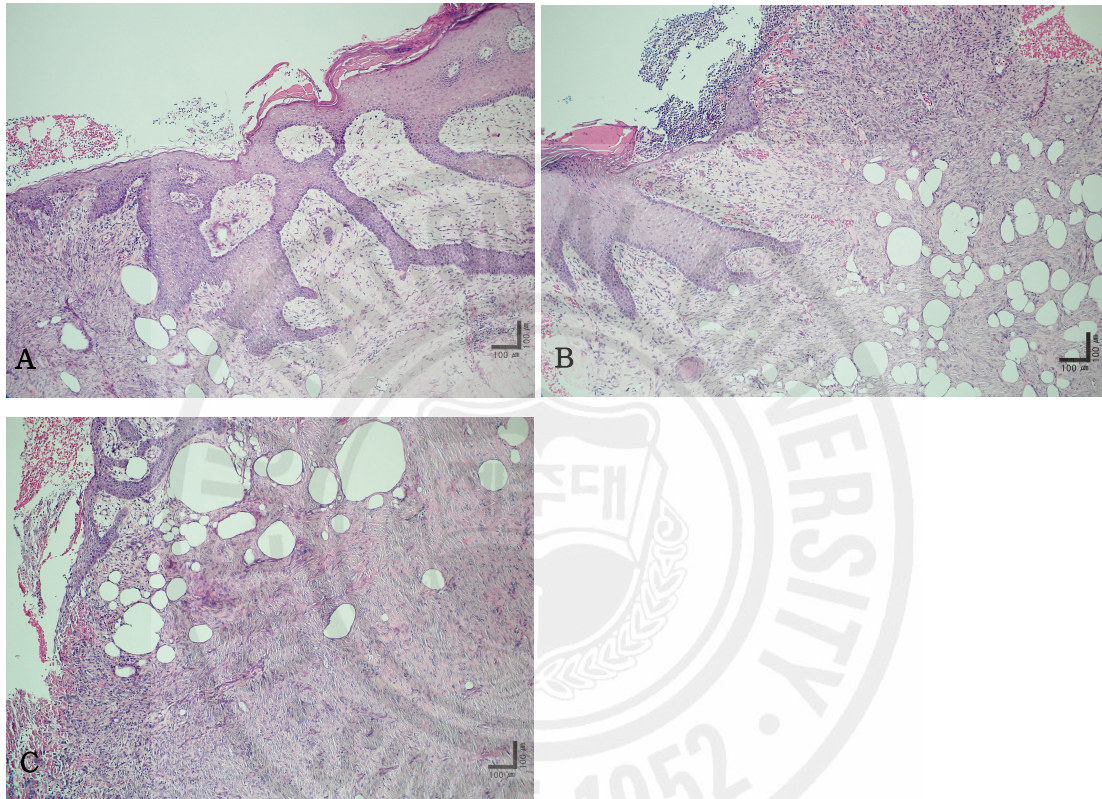


Fig 5. Microscopic findings of the skin on 11th day in the experimental group I (A), the experimental group II (B) and the control group (C). H & E, ×100. Reepithelialization and inflammation were compared.

IV. 고 찰

개에서 창상이 발생하면 주위 피부의 탄성과 장력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창상의 크기가 확대된다(29). 본 실험에서도 창상 유발 직후 창상부의 면적이 변화하였는데 평균 $55\pm 11.8\%$ 창상 면적이 증가하였다.

개방창이나 결손창에서의 창상 수축은 육아조직의 형성에 의한 상피세포의 증식과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며(12,19), 육아조직의 수축 기전에 대해서는 근섬유모세포의 수축력에 의한 작용이라는 이론이 가장 유력하게 인정되고 있다(1,4,10). 본 실험에서 측정된 창상의 수축율은 창연에 있는 상피세포의 증식과 이동 및 육아조직의 수축력과 장력의 영향이 복합된 결과로 판단하였다. 본 실험에서 창상의 수축율은 창상 유발 직후부터 실험 종료까지 실험군 I 과 실험군 II가 대조군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창상부의 폐쇄가 99.9% 이상 그리고, 98.0% 이상 이루어진 개체가 3마리 이상인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창상 수축의 완료단계에서 실험군 I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창상 수축이 2~4일, 실험군 II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1~2일 정도 빠르게 나타났으며, 또한 실험군 I의 경우 실험군 II에 비하여 1~2일 정도 빠르게 나타났다. 창상 치유 과정 중 염증기의 기간을 줄임으로써 창상의 치유를 촉진할 수 있는데(7,16), 본 실험에서는 녹차 추출물의 항균효과로 인해 실험군 I 과 실험군 II의 염증기가 줄어들었고, 또한 녹차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vitamin A와 vitamin C가 collagen의 합성과 섬유모세포의 자극을 촉진하여 창상 수축이 조기에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기간별 창상 치료 점유율로 창상 수축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군 I은 대조군에 비해 1~2일 째를 제외한 0~9일 째 높은 치료 점유율을 보였으며, 실험군 II에 비해서도 1~2일 째를 제외한 0~3일 째 높은 치료 점유율을 보였다. 실험군 II는 대조군에 비해 2~3일 째를 제외한 1~8일 째 높은 치료 점유율을 보였다. 따라서 녹차 추출물이 포함되지 않은 군보다는 포함된 군이 초기 창상 치료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녹차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초기 창상 치료 비중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창상 수축은 상피의 재생 범위를 줄이는 데 효

과가 있으며(4,10), 이는 육아조직의 가교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19). 따라서 창상 수축이 활발히 나타났던 시기에 각 군에서 육아조직 생성이 활발히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창상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섬유소원이 융합하여 단백질 복합체인 collagen을 형성하는데, 이 collagen은 섬유성 단백질의 일종으로 피부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증가시키며, 조직의 유지와 강도를 높여준다(1,15,25,30). 섬유모세포와 collagen 합성은 vitamin A에 의해서 자극되며, vitamin C는 collagen 합성을 위한 proline과 lysine의 hydroxylation을 위해 필수적이다(7,16). 따라서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창상의 치유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실험에서 창상부위의 인장강도는 실험군 I 과 실험군 II가 대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 < 0.05$). 실험군 I 과 실험군 II의 인장강도가 대조군보다 높았던 것은 실험군에서 collagen 합성이 조기에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녹차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vitamin A와 vitamin C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창상 및 염증에 의하여 세포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유 원자기에 의한 세포막 지방 성분의 과산화 및 저산소증에 의한 세포독성으로 2차적인 세포 손상이 발생하여 창상 치유가 방해되는데(12,21), 녹차의 polyphenol 및 flavonol 성분은 강력한 자유 원자기 소거 기능과 세포와의 상호 작용에 의한 세포 보호 작용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창상 치유 효과가 우수하였던 것은 녹차의 성분 중 상기와 같은 항균 및 항산화작용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녹차 추출물의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항균작용이 보고된(18) 이래로 *Vibrio metschnikovii*와 *Alcaligenes faecalis* 등에 대한 항균활성과 *Clostridium botulinum* 포자에 대한 항균성이 보고된 바 있다(41). 본 실험에서는 개의 피부 질환에 주원인이 되며, 창상 감염에 주요한 원인인 *Staphylococcus intermedius*(2,6,11,22)를 창상에 접종하여 창상 유발 후 1, 4, 7, 11, 21일에 창상 내의 잔존 세균수를 측정하였는데, 창상 내에 도포한 세균수의 변화는 세균 도포 후 1일 째부터 11일 째까지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11일 째부터 21일 째까지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 I 과 실험군 II의 세균수가 더 급속히 감소함을 볼 수 있었고($p < 0.05$), 실험군 I 이 실험군 II보다 세균수가 더 급속히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p < 0.05$). 실험군 I, 실

험군Ⅱ 그리고 대조군의 세균수 변화는 염증기와 이물제거기에 출현하는 염증세포에 의하여 나타난 것인데, 실험군Ⅰ과 실험군Ⅱ의 경우 녹차 추출물의 항균효과로 인해 세균수가 대조군보다 더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녹차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항균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창상 치유 과정의 염증기에는 이물제거를 돕는 호중구와 큰포식세포가 나타나며, 이 중 큰포식세포는 성장 인자 및 혈관 신생 자극 물질 및 섬유모세포 자극 인자를 분비한다. 이 시기는 염증기와 이물 제거기가 우세하고 창상의 강도는 증가하지 않는다(12). 본 실험의 병리 조직 소견에서 실험군Ⅰ과 실험군Ⅱ는 창상 유발 후 1일 째와 4일 째에 대조군과 유사한 염증 반응을 나타내며 염증세포가 많이 관찰되었으나, 7일 째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군에서는 11일 째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혈과 과다한 혈액응고는 창상치유를 지연시키는데(16), 7일 째에 실험군Ⅰ에서는 출혈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 실험군Ⅱ와 대조군에서는 출혈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섬유모세포는 창상 유발 후 7일 째부터 실험군Ⅰ, 실험군Ⅱ 그리고 대조군에서 관찰되기 시작하였는데, 섬유모세포의 배열은 진피하층에서는 주로 수평으로 나타났으며, 진피상층에서는 주로 수직으로 나타났다.

상피층의 증생은 실험군Ⅰ과 실험군Ⅱ에서 7일 째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11일 째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관찰되었다. 창상 유발 후 21일 째에는 실험군Ⅰ과 실험군Ⅱ의 상피가 완전히 성숙되어 각화층이 관찰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병리 조직학적 소견을 통해서도 실험군의 창상 치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2% 녹차 추출물을 처치한 실험군Ⅰ이 실험군Ⅱ에 비해 창상치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녹차 추출물을 피부 감염창에 사용하는 것은 catechin의 항균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창상부위의 이물제거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어 염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녹차의 vitamin A와 vitamin C가 섬유모세포를 자극하고 collagen 합성을 촉진하여 창상의 폐쇄시간을 단축시키고, 상피의 복구와 성숙을 신속히 진행시켜 결국, 창상의 치유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다. 녹차 추출물을 개의 감염창의 치료제로 사용함으로써 창상을 치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녹차 추출물이 개의 피부 감염창 치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창상 수축율, 기간별 치료 점유율, 인장강도, 세균수,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 I 과 실험군 II가 실험 전 기간에 걸쳐 대조군보다 높은 창상의 수축율을 나타내었으며, 창상 유발 후 16~18일 째를 제외한 6~22일 째까지 실험군 I 과 실험군 II가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p<0.05$).

기간별 치료 점유율에서, 실험군 I 은 대조군에 비해 1~2일 째를 제외한 0~9일 째 높은 치료 점유율을 보였으며, 실험군 II에 비해서도 1~2일 째를 제외한 0~3일 째 높은 치료 점유율을 보였다. 실험군 II는 대조군에 비해 2~3일 째를 제외한 1~8일 째 높은 치료 점유율을 보였다.

창상 유발 후 22일 째의 창상부 인장강도는 실험군 I 과 실험군 II가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5$), 실험군 I 이 실험군 II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창상부위 세균수는 창상 유발 후 1일 째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1일 째까지 실험군 I 과 실험군 II가 대조군에 비하여 세균수가 더 급속히 감소하였고($p<0.05$), 실험군 I 이 실험군 II보다 감소의 정도가 더 급격하였다($p<0.05$).

병리 조직 소견에서 실험군 I 과 실험군 II가 대조군에 비해 염증기가 짧게 관찰되었다. 창상 유발 후 21일 째에 실험군 I 과 실험군 II는 상피가 완전히 성숙되어 각화층이 관찰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상피의 성숙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창상의 치유 촉진 목적으로 녹차 추출물을 사용하게 되면, 창상의 폐쇄 기간을 앞당기고 창상 내 항균효과를 나타내며, 인장강도를 증가시키고 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주어 창상 치유에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VI. 참고 문헌

1. Berard CW, Woodward SC, Herrmann JB, Palaski EJ. Healing of incisional wound in rats : the relationship of tensile strength and morphology to the normal skin wrinkle lines. *Ann Surg* 1964; 159(2): 264-269.
2. Biberstein EL, Hirsh DC. *Staphylococci*. In: *Veterinary microbiology*. Massachusetts: Blackwell science. 1999: 115-119.
3. Blanco AR, Mulč SL, Babini G, Garbisa S, Enea V, Rusciano D. (-)Epigallocatechin-3-gallate inhibits gelatinase activity of some bacterial isolates from ocular infection, and limits their invasion through gelatine. *Biochim et Biophys Acta* 2003; 1620: 273-281.
4. Bohling MW, Henderson RA, Swaim SF, Kincaid SA, Wright JC. Comparison of the role of the subcutaneous tissues in cutaneous wound healing in the dog and cat. *Vet Surg* 2006; 35: 3-14.
5. Caturla N, Vera-Samper E, Villalaín J, Mateo CR, Micol V.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ioxidant and the antibacterial properties of gallyolated catechins and the structure of phospholipid model membranes. *Free Radic Biol Med* 2003; 34(6): 648-662.
6. Dunning D. Surgical wound infection and the use of antimicrobials. In: *Textbook of small animal surgery*, 3rd ed. Philadelphia: WB Saunders. 2003: 113-121.
7. Erlich HP, Hunt TK. Effects of cortisone and vitamin A on wound healing. *Ann Surg* 1968; 167(3): 324-328.
8. File TM Jr, Tan JS. Treatment of skin and soft-tissue infections. *Am J Surg* 1995; 169: 27-33.
9. Fujiki H, Suganuma M, Okabe S, Sueoka N, Komori A, Sueoka E, Kozu T, Tada Y, Suga K, Imai K, Nakachi K. Cancer inhibition by green tea.

Mutat Res 1998; 402: 307-310.

10. Gallant-Behm CL, Tsao J, Reno C, Olson ME, Hart DA. Skin wound healing in the first generation(F1) offspring of Yorkshire and red Duroc pigs : Evidence for genetic inheritance of wound phenotype. Burns 2006; 32: 180-193.
11. Hartmann FA, White DG, West SEH, Walker RD, DeBoer DJ.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Staphylococcus intermedius* carriage by healthy dogs and comparison of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patterns to isolates from dogs with pyoderma. Vet Microbiol 2005; 108: 119-131.
12. Hedlund CH. Surgery of the intergumentary system. In: Small animal surgery, 2nd ed. St. Louis: Mosby. 2002: 134-228.
13. Hii CS, Howell SL. Effects of epicatechin on rat islets of Langerhansns. Diabetes 1984; 33(3): 291-6.
14. Hirsh DC, Zee YC, Castro AE. Laboratory diagnosis, In: Veterinary microbiology. Massachusetts: Blackwell science. 1999: 15-27.
15. Hohf RP. Tensile strength of the arterial-prosthesis anastomosis during healing. Ann Surg 1962; 156(5): 805-810.
16. Hosgood G. Wound repair and specific tissue response to injury, In: Textbook of small animal surgery, 3rd ed. Philadelphia: WB Saunders. 2003: 66-86.
17. Huang Y, Zhang A, Lau CW, Chen ZY. Vasorelaxant effects of purified green tea epicatechin derivatives in rat mesenteric artery. Life Sci 1998; 63: 275-283.
18. Ikigai H, Nakae T, Hara Y, Shimamura T. Bactericidal catechins damage the lipid bilayer. Biochim Biophys Acta 1993; 1147: 132-136.
19. Levenson SM, Geever EF, Crowley LV, Oates JF, Berard CW. The healing of rat skin wounds. Ann Surg 1965; 161(2): 293-308.
20. Loccioli GM, Kahn DS, Robertson HR. Histologic study of wound contraction in the rabbit. Ann Surg 1964; 160(6): 1030-1040.

21. Lotito SB, Fraga CG. (+)-catechin prevents human plasma oxidation. Free Radic Biol Med 1998; 24: 435-441.
22. Medleau L, Long RE, Brwon J. Frequency an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Staphylococcus* species isolated from canine pyoderma, Am J Vet Res 1986; 44: 601-605.
23. O'Dell ML. Skin and wound infections: an overview. Am Fam Physician 1998; 57: 2424-2432.
24. Perva-Uzunalić A, Škerget M, Knez Ž, Weinreich B, Otto F, Grűner S. Extraction of active ingredients from greent tea(*Camellia sinensis*) : Extraction efficiency of major catechins and caffeine. Food Chem 2006; 96: 597-605.
25. Ross R, Benditt EP. Wound healing and collagen formation. J Cell Biol 1965; 27: 83-106.
26. Sakanaka S, Juneja LR, Taniguchi M. Antimicrobial effects of green tea polyphenols on themophilic spore-forming bacteria. J Biosci Bioeng 2000; 90(1): 81-85.
27. Stapleton PD, Shah S, Anderson JC, Hara Y, Hamilton-Miller JMT, Taylor PW. Modulation of β -lactam resistance in *Staphylococcus aureus* by catechins and gallate. Int J Antimicrob Agents 2004; 23: 462-467.
28. Suzuki H, Ishigaki A, Hara Y. Long term effect of a trace amount of tea catechins with perilla oil on the plasma lipids in mice, Int J Vitam Nutr Res 1998; 68: 272-274.
29. Waldron DR, Zimmerman-Pope N. Superficial skin wounds. In: Textbook of Small animal surgery, 3rd ed. Philadelphia: WB Saunders. 2003; 259-273.
30. Watts TW, Baddeley MB, Wellings R, Evans J. The nature of wound healing : experimental tensile strength, studies with deca durabolin and S³⁵. Ann Surg 1965; 162(1): 109-112.
31. Yang CS, Wang ZY. Tea and cancer. J Natl Cancer Inst 1993; 85:

1038-1049.

32. 김영관. 국내외 녹차 추출물의 항균작용. 한국환경위생학회지 1995; 21(1): 39-46.
33. 김정일, 노경호. 용매추출과 분배에 의한 한국산 녹차로부터 카테킨 화합물의 회수. 한국생물공학회지 2001; 16(5): 442-445.
34. 박찬성. 식중독세균에 대한 녹차 물추출물의 항균작용. 농산물저장유통학회지 1998; 5(3): 286-291.
35. 박찬성, 차문석, 김미림. 배지의 pH에 따른 녹차 추출물의 *Staphylococcus aureus*와 *Salmonella typhimurium*에 대한 항균작용. 농산물저장유통학회지 2001; 8(2): 206-212.
36. 윤상용, 황인아, 유종엽, 박경찬. 녹차 추출물을 함유한 보습제의 항염증 평가. 대한피부과학회지 2004; 41(1): 15-20
37. 이은희, 이종권, 홍진태, 정경미, 김용규, 이선희, 정수연, 이용옥. 녹차 추출물 성분 catechin이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위생학회지 2001; 16(2): 117-124.
38. 정양숙, 강경희, 장명웅. 녹차 등의 기호차가 *Helicobacter pylori*의 증식 억제와 공포화 독소 역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물공학회지 2001; 16(2): 163-169.
39. 정현자, 김자화, 지원대. 향구강균성 녹차의 증류성분. 한국위생과학회지 2001; 7(1): 11-15.
40. 조선영, 최재호, 함승시, 오덕환. *Escherichia coli* O157:H7균에 대한 녹차 추출물 및 분획물의 항균효과. 한국환경위생학회지 2005; 20(1): 48-52.
41. 조영수, 김형삼, 김성규, 권오창, 정순재, 이용문. 식중독 유발균에 대한 녹차 추출물의 항균 및 살균작용. 한국차학회지 1997; 3(2): 89-103.
42. 황경택, 권오경, 우홍명, 김대용, 남치주. 소양막이식편이 개의 전층 피부 창상 치유에 미치는 효과. 한국임상수의학회지 1999; 39(3): 645-652.